

‘은퇴 위기’ 정성훈, 다시 고향팀으로

KIA타이거즈, 무적 신분 정성훈 연봉 1억원에 입단 계약 맺어

1999년 해태 입단...“팀에 도움된다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8일 무적 신분인 내야수 정성훈(37)을 영입했다.

KIA는 이날 오전 정성훈과 연봉 1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

다. 정성훈은 18일 구단 체력 테스트 시간에 선수단과 상견례를 했다. 코칭스태프는 논의를 거쳐 정성훈의 스케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송정호-무등중-광주제일고를 졸업

하고 1999년 해태에 입단한 정성훈은 2003년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됐다. 이후 2009년부터 9시즌 동안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으며 지난해 말 무적 신분이 됐다.

정성훈은 “기회를 준 KIA 구단에 감사한다”면서 “고향 팀에서 다시 뛰게 돼 설렌다. 팀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훈은 지난해까지 통산 2135경기에 출전, 타율 0.239에 170홈런 969타점 1018득점을 기록 중이다. 작년 11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2(27타수 8안타) 6홈런 30타점 32득점을 올렸다.

‘KIA 행’ 정성훈, 김기태 감독과 재회 ‘동행 시즌2’



LG시절 김기태 감독과 정성훈 선수

예상대로 KIA가 정성훈을 품었다. 김기태 감독과 재회한 정성훈은 LG에 이어 KIA에서 두 번째 동행을 한다.

KIA는 18일 무적 신분 내야수 정성훈(38)과 연봉 1억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월 LG의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된 뒤 자유의 몸이 된 정성훈은 2002년 시즌 후 트레이드로 떠나야 했던 고향팀에 돌아왔다.

2002년 트레이드로 KIA 떠나

김기태 감독·조계현 단장 인연

16년만의 복귀...방망이 여전

16년만의 KIA 복귀는 김기태 감독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2012~2014년 LG 감독을 맡으며 정성훈과 3년을 함께했다. 이 기간 정성훈은 LG의 중심타자로 활약하며 김기태 감독과 남다른 교감, 추억을 쌓았다.

2012년 시즌을 마친 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을 때 LG 잔류를 결정한 것도 김기태 감독 때문이었다. 다른 팀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김 감독과 의리를 버릴 수 없었다. 결국 2013년 LG를 11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별해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했다.

김 감독이 2014년 4월 자진 사퇴하며 갑자기 LG를 떠났지만 정성훈과 인연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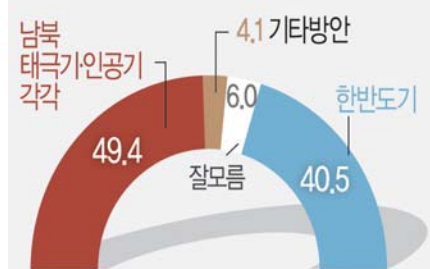
김 감독은 2015년부터 KIA 지휘봉을 잡았고 지난해를 끝으로 LG 세대교체 흐름에 밀린 정성훈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계현 KIA 단장도 LG에서 김 감독의 수석코치로 정성훈과 인연이 남달랐다.

그렇다고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이나 정 때문에 영입한 건 아니다. 정성훈은 지난해에도 115경기에서 타율 3할1푼2리 6홈런 30타점 OPS .828을 기록했다. 나이는 있지만 여전히 방망이는 살아있다. KIA에서 주전은 아니더라도 백업이나 대타로 쓰임새가 충분하다. 김 감독도 “경험이 풍부해 활용도가 높다. 타석에서 대기하는 타자가 정성훈이라면 상대가 느끼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KIA에서 집된 2기를 맞은 김 감독은 “정성훈과 함께 힘을 합쳐 좋은 팀을 만들고 싶다”고 기대했다. LG에 이어 KIA에서 김 감독과 두 번째 동행을 하게 된 정성훈이 고향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창올림픽 남북 입장 기(旗) 여론조사 단위:%



연령별 의견



지지정당별 의견



*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자료: 리얼미터

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다.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5%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반대’... “개별국기 들자” 49.4%

국민 절반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남북 선수단이 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9.4%로 나타났다.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5%로 분석됐다. 기타 방안은 4.1%, ‘잘 모름’은 6.0%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56.2%), 서울(53.0%), 대전·충청·세종(50.6%), 경기·인천(50.4%), 부

산·경남·울산(47.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라(58.6%)에서는 ‘남북 모두 한반도기’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2.2%), 30대(50.7%), 50대(48.3%), 20대(44.0%)의 순으로 개별국기 사용을 선호했다. 40대(52.1%)에서는 ‘남북 모두 한반도기’ 응답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6.1%였다.

뉴스스



“배구잔치 열리네”...21일 ‘V리그 올스타전’

21일 오후 2시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17~2018 V-리그 올스타전에서 다채롭고 화려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드림퍼포머 최소리가 무대를 연다. 애국가와 가수 김혜림이 부른다. 가수 에일리는 자신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올스타전은 로컬몰로 여자부 2세트, 남자부 2세트 총 4세트(세트별 15점)로 진행해 총점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외국인선수 인원제한이 없고 리베로들의 공격도 가능하다.

선수들은 멋진 세리머니를 준비했다. 각 팀 감독은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이 꽤 경기를 운영하고 비

디오를 관측한다. 올스타전 경기 종료 후에는 팬 사인회가 열린다. V부어 티켓을 구매한 팬들과 올스타전 현장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팬 약 400명이 참여한다.

올스타전은 21일 오후 1시50분부터 SBS스포츠, KBS스포츠,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다. 20대가 넘는 첨단 방송기계가 투입돼 올스타전 경기뿐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3중 비자정착은 입장이 늦어질 경우 안전문제로 인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뉴스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엔트리 내일 스위스서 확정, 그러나...

엔트리 확대·불공정 등 참가국 양해 불투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가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했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같은해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에 이어 역대 3번째다. 27년 만에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특히 올림픽 같은 종합 국제대회에 남북이 하나가 돼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평화 올림픽’ 기조에 맞고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대회 흥행성공 등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뒷말이 많다. 엔트리 확대와 그에 따른 불공정을 참가국들이 양해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엔트리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평창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북한), 남북 고위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이 참가해 논의한다.

정부는 기존의 한국 선수 최종 엔트리 23명에 북한 선수 일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단일팀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체 엔트리와 무관하게 한 경기 엔트리는 22명이므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 공정한 싸움이 될 수 없는 탓이다. 이 같은 요청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리와 상대할 참가국 역시 단일팀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를 간격으로 경기를 할 경우, 엔트리가 많은 팀이 체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엔트리 확대가 수용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우리 선수 몇몇을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스웨덴, 스위스 일본과 함께 B조에 속했다. 2월10일 스위스를 시작으로 12일 스웨덴, 14일 위령회(IOC),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측 선수가 벗어나 합류할지도 관심사다.

세라 머레이(30·캐나다) 대표팀 감독은 ‘반야 단일팀이 된다면 북측 선수 몇 명이 합류하는 것이 적당하느냐’는 질문에 “10명을 합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냉정히 말하면 북한

선수의 추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선수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경기까지 3주 남짓 남았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선수를 추가해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가 하라고 하니 억지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중대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부 방식은 20일 최종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흠으로 남게 됐다.

뉴스스

마흔여섯 이치로, 샌프란시스코냐 오릭스 복귀냐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45)의 행보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본 데일리스포츠 신문은 18일 ‘메이저 리그 18년차를 준비하고 있는 이치로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FA 신청 후 약 2개

월 동안 영입 제의를 기다렸다. 시애틀 매리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협상에 큰 진전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후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치로는 지난해 마이애미 밀린

스를 끝으로 FA 신분이 됐다. 천재타자 로 불리며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지만 최근 백업 야수로 전전하면서 명맥을 이어왔다. 이치로를 원하는 구단이 없어져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야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이치로 대리인의 발언을 통해 “메이저리그 오퍼가 없으면 일본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스